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1. 3. 5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(FATF), 이란·북한 '고위험 국가' 유지
 - 2.26 FATF는 총회를 개최하고 △이란·북한을 조치를 요하는 '고위험 국가' 유지, △모로코·세네갈 등 4개국 '관찰대상 국가'에 추가하는 한편, 테러자금조달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
- 獨, 무슬림 난민에 의한 테러 위협 경고
 - 3.1 독일 연방정부 대테러전문가는 “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유럽 연합(EU) 난민시스템을 惡用, 테러조직원과 자금을 모집하고 공격을 획책하고 있다”고 경고
 - * '12년 이후 EU에서 무슬림 132명이 91건의 테러 자행, 이중 난민신청자는 25명

미 주

- 美 국토안보부(DHS), 극단주의 대응 예산지원 방침
 - 2.25 美 DHS는 국회의사당 난입사태(1.6) 계기 백인우월주의 등 극우단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州정부 등에 7,700萬弗(한화 865억원)을 지원하겠다고 발표
 - * 지원된 예산은 국내테러 위협 분석 및 평가 프로그램 등에 사용될 예정
- 美 국방부, 극단주의자 분석 보고서 작성
 - 2.25 CNN은 美 국방부가 지난 '20.10 軍內 극단주의자 활동 양상, 관련 성향 포지 여부 식별 방법 및 해당자 강제 전역 방안을 내용으로 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도
 - * 보고서는 “특히, 군인들은 전투기술을 지니고 있어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”고 지적

중 동

- **탈레반, 외국인 납치·억류 금지령 지시**
 - 2.24 탈레반은 직원들에게 외국인을 납치·억류하는 행동 금지 및 자의적인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으며, 불이행 시 군무위원회에 회부해 처벌할 것이라는 성명 발표
 - * 미국과 평화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평가
- **이집트, 美 정부에 테러와의 전쟁 약속**
 - 2.24 「사메 쇼크 리」 이집트 외무부장은 「블링켄」 美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자국 정부의 대테러戰 지속을 약속하고, 리비아·팔레스타인 지역의 테러정세 안정화를 위한 양국간 협력 필요성 등을 논의
- **탈레반, 美 동맹군에 5.1限 철수 약속 이행 촉구**
 - 2.28 탈레반은 카타르 도하 평화합의 1주년 기념성명에서 美 「바이든」 행정부를 향해 美軍과 국제동맹軍의 5.1까지 철수, 탈레반 수감자 석방 및 블랙리스트 삭제를 요구
 - * 2.18 美 국방장관은 NATO 회의中 “아프간에서 성급하게 철군하지 않겠다”고 언급

아프리카

- **나이지리아, 무장괴한에 납치된 여학생 279명 전원 구출**
 - 3.2 나이지리아 잠파라州 정부는 지난달 26일 무장괴한에 납치되었던 여학생 279명 전원이 무사히 풀려났으며, 범죄조직에 소속되었다가 회개한 이들이 여학생들의 석방을 도왔다고 발표
 - * 나이지리아에서는 무장괴한들의 몸값을 노린 학생 납치 사건이 최근 3개월간 3회 발생

파키스탄 방문 스리랑카 크리켓 대표팀 겨냥 총기테러 사건

- '09.3.3. 오전 9시경 파키스탄 동부 편자브주 라호르市에서 원정 경기에 나섰던 스리랑카 크리켓 대표팀 버스를 겨냥한 총기테러가 발생, 경찰관 5명을 포함해 7명 사망·8명 부상
 - 소총과 로켓포, 수류탄 등으로 무장한 괴한 12명이 경기를 위해 라호르 시내 카다피 스타디움에 도착한 스리랑카 크리켓 대표팀 버스와 이를 호위하던 경찰차량을 둘러싸고 총기를 난사
 - * '72년 뮌헨 올림픽 참사 이후 37년 만에 발생한 스포츠 대표팀 겨냥 테러
 - 파키스탄 정부는 자국 내 이슬람 무장세력이 세력을 과시하고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
- 편자브 경찰당국은 '09.6.17 용의자 1명을 체포, 용의자가 테러조직으로 지정된 무장단체의 일원이라고 밝혔으나 무장 단체 이름은 미공개, 당시 언론에서는 '라쉬카르 에 타이바'(LeT)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보도

< 라쉬카르 에 타이바(LeT, Lashkar-e-Taiba) >

- (결성배경) 아랍어로 'Lashkar'는 군대, 'Taiba'는 '의로움'의 의미로 '의병대'를 뜻하며 아프간에서 소련군 철수('89년)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가 「압둘라 아잠」, 「하피즈 사이드」등이 인도령 카슈미르의 파키스탄 귀속과 남아시아의 이슬람화를 목적으로 결성
 - * 테러단체 지정 : UN('05.5), 미국('01.12), 영국('01.3)
- (활동지역) 파키스탄 편자브·카이버팍툰와주·카슈미르 지역, 인도령 도다·잠무 카슈미르 지역
- (주요테러) '08.11 인도 뭄바이 호텔, 기차역 등 동시다발 테러(사망 166명, 부상 300명)
'15.7 인도 편자브주 구르다스푸르 경찰서 기습공격(사망 19명)

